

107年公務人員特種考試司法人員、法務部  
調查局調查人員、國家安全局國家安全情報  
人員、海岸巡防人員及移民行政人員考試試題

考試別：調查人員、國家安全情報人員

等別：三等考試

類科組：調查工作組（選試韓文）、國際組（選試韓文）

科目：外國文（韓文）

考試時間：2小時

座號：\_\_\_\_\_

※注意：(一)禁止使用電子計算器。

(二)不必抄題，作答時請將試題題號及答案依照順序寫在試卷上，於本試題上作答者，不予計分。

一、다음 글을 중국어로 옮기십시오. (每小題 25 分，共 50 分)

(一)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폼페이오 장관은 3 차 방북 때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폐기할 핵무기 목록과 비핵화 시간표, 미사일 시험장 폐쇄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은 안전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며 6·25 종전선언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막후에선 잘 되고 있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정작 보좌진 회의에선 후속협상에 진전이 전혀 없는 점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도 나왔다. 한편으로 북한은 연일 대남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신문은 어제도 난데없이 “남조선 경제위기와 민생파탄” 운운하며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북한의 작년 성장률을 3.5% 감소로 추정한 한국은행 발표, 그리고 남북교류에 속도를 내지 않은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 표시로 보인다. 여기에는 과거 북한이 협상국면에서 궁지에 처할 때면 늘 그랬듯 한국이 나서 미국을 유연한 자세로 전환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은근한 요청도 깔려 있을 것이다.

(二) “나는 가난한 탁발승(托鉢僧)이오.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젖 한 깡통, 허름한 요포(腰布) 여섯 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 뿐이오.” 마하트마 간디가 1931 년 9 월 런던에서 열린 제 2 차 원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도중 마르세유 세관원에게 소지품을 펼쳐 보이면서 한 말이다. K. 크리팔라니가 엮은 <간디어록>을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의 내 분수로 그렇다. 사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나는 아무 것도 갖고 오지 않았다. 살만큼 살다가 이 지상의 적(籍)에서 사라져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살다보니 이것저것 내 몫이 생기게 되었다. 물론 일상에 소용되는 물건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꼭 요긴한 것들만일까? 살펴볼수록 없어도 좋을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二、다음 글을 한국어로 옮기십시오. (每小題 25 分，共 50 分)

- (一)臉書不生產任何內容，仍然是在地球上最受歡迎的媒體。沒有酒店房間的「愛彼迎(Airbnb)」是全球最大的旅店提供商。沒有一輛出租車的優步(Uber)是世界上最大的交通服務企業。這些企業以資訊技術為基礎建立平台，找到以前沒有的商務模式，改變了現代人的日常生活。儘管沒有自己的產品、不動產和汽車，但由於打造了連接人與人的平台，一躍成為各自行業中最優秀的企業。它們都是從創業起步，後來成為神話的巨大資訊技術企業。但是看待它們的視角正在逐漸發生變化。隨著逃稅、假新聞、個人資訊洩露等問題浮出水面，它們成為國際指責的對象。
- (二)逾越國境走向世界的韓國電視劇，能夠如此令世人著迷的秘訣是什麼呢？毫無疑問，應首推「卓越的視覺美、華麗的動作和個性突出的演員」。從內容上看，最令人矚目的是透過電視劇演繹了人類普遍的感性規則。此外，韓國電視劇提倡家庭共同體意識與孝心價值的同時，還演繹了純真而時尚的愛情，吸引了亞洲人的喜愛，對暴力和性，或迴避或輕描淡寫，著重強調人類具有的普遍性，從而贏得了世界各個國家和民族的認可。